

“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!”



아시아·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
알기 쉽게 쓴 책

에스캡(ESCAP)이 무엇인가요?

에스캡은 아시아·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(ESCAP: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)를 말합니다. 에스캡은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 있는 유엔기구입니다.



에스캡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,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에스캡은 세 번의 아시아·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을 지원해왔습니다.

첫 번째 아시아·태평양 장애인 10년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.

두 번째 아시아·태평양 장애인 10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.

현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세 번째 아시아·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시행 중입니다.

세 번의 아시아·태평양 장애인 10년은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, 장애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첫 번째
아시아·태평양
장애인 10년
1993~2002

두 번째
아시아·태평양
장애인 10년
2003~2012

세 번째
아시아·태평양
장애인 10년
2013~2022

인천전략은 세 번째 아시아·태평양 장애인 10년의 기간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.

‘인천전략’이라는 이름은 세 번째 아시아·태평양 장애인 10년의 계획이 만들어진 지역인 ‘인천’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.



아시아·태평양 지역 안에 있는 나라들과 장애인 들은 2012년 11월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만나 인천전략을 만들었습니다.

인천전략이란 무엇인가요?

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가 있습니다. 이 목표들 안에는 27개의 작은 목표가 있고, 이 목표가 잘 이뤄졌는지 평가하기 위한 62개의 평가기준도 있습니다. 이 책은 인천전략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
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장애물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실제로 장애물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

여기에 인천전략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.

인천전략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각 나라가 장애인에 관한 자료를 모으도록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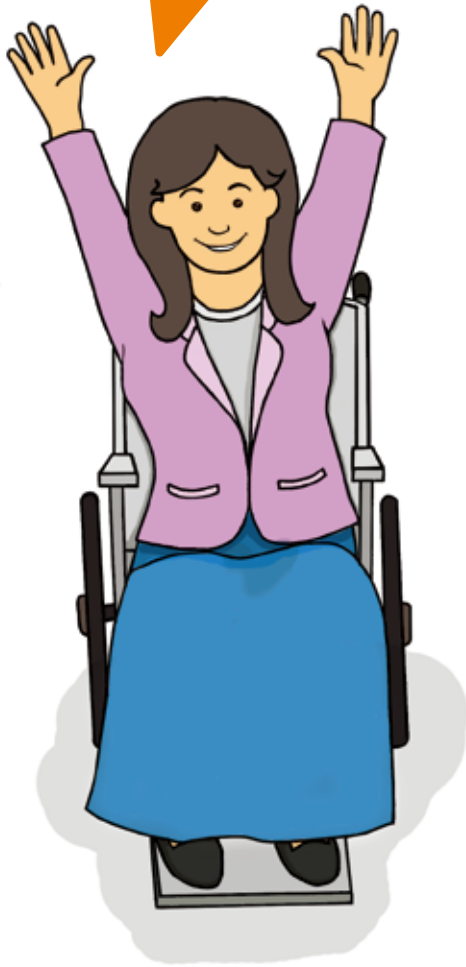




인천전략의 주요 정신

- 장애인은 존중받아야 한다.
- 장애인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.
-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-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

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!



- 장애인도 학교에 가고, 직업을 갖고, 투표하고, 선거에 나가고, 시장에 가고,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.

- 장애인도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장애인도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(버스, 지하철 등)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



-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.



- 장애아동은 다른 모든 아동들과 똑같이 존중

预览已结束，完整报告链接和二维码如下：

https://www.yunbaogao.cn/report/index/report?reportId=5_4365

